

카페베네의 매거진
우리동네 Side B

햇살이 비치는 작은 골목길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나날들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보통의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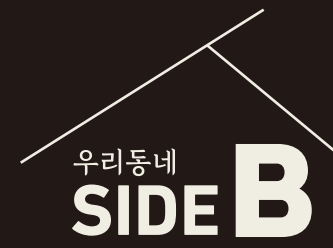
하지만 그 이면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소중한 이야기들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페베네의 동네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우리동네 Side B를
산책하듯 천천히 풀어주세요

Vol.5

우리동네
SIDE B









Editorial

너무 완벽한 하루를 보낸 나머지
행복이 달아날까 두려웠던 적이 있어요.

평범했던 일상이 참 특별한 하루였는데
어쩐지 시시하고 지루한 내일이 찾아올까 봐
오래도록 잠들지 못한 날이었죠.

그런데 먼 훗날 정말 행복은 달아나버리고
삶이 정지해버린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무언가 멈춰버렸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선 것처럼
삶을 등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조차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 순간, 어느덧 너무 멀어져 희미해진 추억이
시간을 역행해 찾아와 말을 걸더라고요.

“오직 너만이 나아갈 수 있었던,
서로 다른 길들의 교차로 속에서 참 많이 웃었던,
저 특별한 길을 봐.”

출발선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길 위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카페베네는 우리동네 Side B Vol.5의 주제를
‘길’로 정하며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길들을 이곳에 모으며

그때 지나쳤던 행복이 전부였을 거라 생각해서
들춰보지 못했던 길들을 조심스레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시나요?

내가 사랑하고 또 함께했던 것들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준 적은 없었을까요?

각자 다른 삶, 각자 다른 길이어서
그 풍경이 다양하고 멋진

우리들의 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펼쳐보세요.

에디터 오 광록



누군가에게 봄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 곤세나

곤세나 작가님께.

안녕하세요 곤세나 작가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봤을 때의 여운이 깊어 이렇게 편지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작가님을 만났을 때가 여전히 기억에 선명해요.

마침 벚꽃 잎이 공중을 분홍빛으로 물들이며 봄이 왔다는 소식을 알리고 있을 때였죠.

사실 작가님을 만나기 전,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꿈을 계속 이어나가도 좋을지, 앞으로 다가올 사랑을 용기 있게 해나갈 수 있는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작가님보다 작가님의 작품을 먼저 만나게 되었는데요.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 새롭게 사랑을 시작할 힘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마치 마치 시작되지도 않은 사랑이 봄꽃처럼 다가와 막 피어나려 하는 느낌이었죠.

작가님의 작품에는 모두를 위한 사랑과 따스한 위로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작가님, 길을 걷던 도중 언젠가 주제가 사랑이 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덤덤한 듯 표정을 잘 꾸렸다고 생각했지만 작가님은 저를 보며

"그 시절의 사랑은 많이 아프잖아요." 라고 말해주셨죠,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애써 표정을 숨기고 시선을 돌려 새싹들이 움트고
가지 끝에 여러 색깔의 꽃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봤어요.

작가님은 자연과 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죠.

제가 잘 모르는 식물이나 꽃들의 이름을 여쭙보면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주신 기억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냐는 질문에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담아 오래 지켜보면 자연스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답해주셨어요.

문득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고 말했다 때는

"옆에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라며 부드럽게 말해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게는 그날 작가님을 만났던 하루가 어떤 응원처럼 여겨졌어요.

내일도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설렘 같은 기분과 함께 말이예요.

다음 날에는 놀랍게도 365일 지지 않는 봄날의 꽃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 심어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정말, 봄을 선물받은 기분이었죠.

곤세나 작가님, 제가 그날 느꼈던 봄날의 설렘과 행복을 담아

편지를 전해드려요. 작가님이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곤세나 작가님께
답장으로 받은 따듯한 봄을
여기에 실습니다.



이끼고 지는게 어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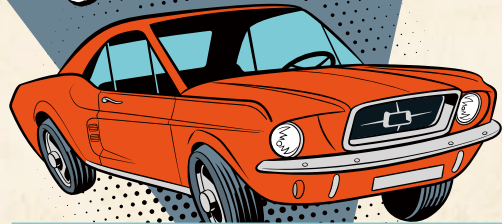
살아있음
기쁨은
어디에

살아있어 좋은 봄날
굳세나 드립니다.



Interview

Old Car



올드카와 함께하는 길

오랜 시간 사랑받았지만 잊혀졌던 곳,
그러나 기억하고 보존하는 사람들로 인해
새로운 장소로 태어난 노들섬.

옛것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음악 매개 복합문화기지' 노들섬에서,

음악을 사랑하고, 올드카를 사랑하며, 현재를 즐기는
슬리피(김성원) 님과 신준섭 님, 하지환 님,
김동만 팀장님을 모시고

과거를 싣고 내일을 달리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카페네네(이하 카): 안녕하세요, 카페네네 이색 길 특집 인터뷰 '올드카와 함께하는 길'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요즘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올드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올드카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한 분씩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Hyundai Grandeur

슬리피(이하 슬): 저는 박스터라고 포르쉐 2001년식을 누군가 빌려줘서 오래된 차를 그때 처음 접하게 됐어요. 요즘에는 영타이머라고 하죠, 올드카까지는 아닌데 꽤 오래된 차를 타다가, 그 차를 빌려줬던 분에게 다시 드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세피아를 가져오게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차 동호회 중 '올드타이머'라는 동호회 회장이 세피아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상태가 정말 좋은 세피아였는데 사실 처음에는 기분이 그냥 그랬어요. 제가 세피아에 추억이 있다거나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또 사람들이 올드카를 길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타다 보니, 세피아라는 차와 국산 올드카의 매력에 굉장히 빠져들게 됐어요. 올드카 씬이라고 해야 할까요. 카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처럼 차에 관심이 생기게 됐고, 그러는 와중에 각그랜저라는 차량이 눈에 들어와 타게 됐어요. 각그랜저는 올드카 중에서 인기 있는 차량 중 하나예요. 하나라기 보다 항상 1위죠, 다시 타고 싶은 차.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 1위 거든요. 디자인 자체가 이미 각진 게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바람을 더 잘 맞기 위해, 속도, 성능, 연비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해 각기 다른 이유로 각진 차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 만으로도 인기가 많은 대형 세단 중 하나가 됐죠. 제가 세피아를 타면서 차를 바꾸고 싶단 생각한 게 결국에는 승차감이 때문이었는데요. 각그랜저는 승차감도 여전히 좋아요. 출시 당시에 집 한 채 값이라는 얘기도 있고, 기업 회장님들도 타고 전 대통령도 탔을 정도로 그만큼 위상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자동차들과 BMW, 벤츠도 타봤지만 각그랜저는 지금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지환(이하 하): 저는 94년생인데요, 제가 어렸을 당시에 친구들과 골목에서 노닐다 보면 국산차들이 있었어요. 그 차들을 보면서 자라서인지 언젠가부터 국산 올드카에 정이 들게 되더라고요. 첫 차는 엘란이라는 차를 구매하게 됐어요. 첫 차라 비싼 차는 조금 어렵고, 저렴하면서도 구입 비용보다는 조금 특별하고 있어 보이는(웃음) 차를 타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차에 부합하는 게 바로 엘란이었어요. 2015년에 엘란이라는 차를 처음으로 구매하고 난 후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데일리 카로 탔어요. 준섭님도 엘란을 타서 아쉬웠지만 저 차가 누수 문제가 심각해요. 비가 오면 비가 세수하듯이 새요. 차 자체에서 새는 건 아니고, 실링 고무 부분에서 비가 새는데, 많이 팔린 차도 아니고 연식도 있다 보니까 부품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첫 차라서 차마 팔고 싶지 않고 스트레스를 조금 받아서 두 번째 차를 사고 싶단 생각이었는데 그때도 신차에는 아예 관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신차는 아무래도 비싸고, 두 번째 차도 특별한 걸로 하고 싶었거든요. 엘란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는 차를 생각하던 중 티코하고 현대 각그랜저가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티코는 어릴 때 저희 집 아버지 차가 티코였기 때문에 정감이 가긴 했는데 그만큼 많이 타봤을 거 아니에요. 운전을 직접 해본 건 아니었지만 티코라는 차는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각그랜저에 조금 더 마음이 가서 인생 두 번째 차는 각그랜저를 구입하게 됐어요.

카: 잠시만요, 올드카를 몇 대나 소유하고 계신 거죠?(웃음)

하: 현재는 총 네 대예요(웃음). 세 번째 차는 개성 있고 연비 좋은 차, 되도록이면 올드카이면서 나하고 추억이 있는 차면 좋겠다 했는데 티코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인천에서 자동차 수출을 하는 분이 글을 딱 봤어요. 티코 상태 좋는데 내가 타다가 수출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써놓은 글을 제가 본 거였어요. 안 봐야 뵈는데(웃음) 그걸 보고 댓글로 연락한 후 바로 다음날 가서 상태를 보고 구입하게 됐어요. 그러면 라인업이 엘란-스포르츠카, 각그랜저-고급차, 티코-경차가 완성된 거잖아요. 이제는 SUV가 타고 싶은 거예요(웃음). 국산차에서 옛날 SUV라고 하면 각코란도라고 옛날 지프차처럼 생긴 코란도가 있거든요. 그 차를 인생 네 번째 차로 구입을 했는데 딱 두 달 타고서 아는 분에게 그냥 드렸어요.

카: 두 달 만에요?

하: 이게 옛날 코란도다 보니까 디젤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디젤 5등급 규제가 있어서 어느 날 환경 관련 공무원분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폐차를 하든 DPf를 달든 하라고요. 그런데 옛날 삼십 년 전 코란도는 배기가스 저장장치가 개발된 게 없어요. 차는 멀쩡하지만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저는 코란도가 정말 좋아서 폐차는 하기 싫고, 내가 이 차를 돈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는데 팔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는 분 중에 올드카를 30여 대 정도 수집한 분이 계시어요. 그런데 그분이 각코란도 순정은 없으셨거든요. 마침 제 차는 각코란도 순정이었죠. 전화를 그분에게 드렸어요. 각코란도가 제게 즐거움을 줬던 차인데 돈 받고 팔긴 싫고, 사장님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엔 그분도 돈 받고 팔지 왜 그냥 주려고 하나면서 저에게 '판매'를 하라고 하셨지만, 제 고집이 좀 센 편이라 결국 그냥 가져가셨어요. 그분 꿈이 박물관을 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올드카를 30여대 모았는데 본인 컬렉션을 여는 게 꿈이더라고요. 이왕이면 제 코란도도 컬렉션에 함께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았어요.



Daewoo Matiz d'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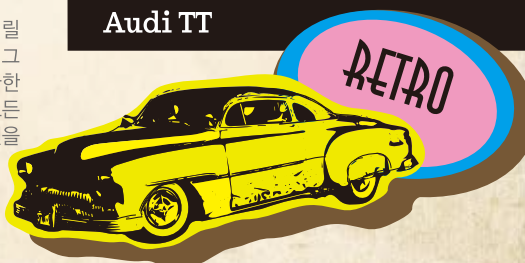


하: 다섯 번째는 오늘 타고 온 마티즈 디아트라는 차인데, 제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마티즈이기도 할 정도로 디자인을 좋아했거든요. 올드카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추억의 자동차 이런 느낌은 나잖아요. 그래서 마티즈를 알아봤는데, 일반적인 마티즈 말고 마티즈 디아트라고 한 달에 오십 대만 한정적으로 판매된 차가 있어요. 현대 캐스퍼 아시나요? 현대 캐스퍼가 나왔을 때 항상 저 차가 같이 언급 됐어요. 아반떼보다 더 비싼 경차 현대 캐스퍼. 이게 말이 되냐고 뉴스에 많이 나왔죠. 하지만 20여 년 전에 이미 있었어요. 마티즈였죠. 저게 한정판 마티즈라서 조금 비싸게 나온 차였거든요. 안 그래도 비싼데 월 50대 한정적으로 팔았던 마티즈라서 희소성이 더 있는 편이에요. 올드카는 아니지만 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는 차량이거든요. 제가 작년 10월에 구입을 하고 SNS에 딱 올렸는데 그다음 날 바로 사람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타고서 팔 일이 있으면 꼭 자기한테 연락 달라고요. 그때부터 차가 더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웃음). 그전까지만 해도 이미 차가 세 대가 있는데 차를 하나 또 더 구입한 게 ভাল 건가 싶었는데 이 차가 그만큼 희소하구나. 이거를 느끼기 시작하니까 더 재밌고 자부심도 약간 생기고 그렇게 됐어요.

김동만(이하 김): 저는 티티만 벌써 6대째 타고 있습니다(웃음). 티티는 제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싶어 했던 저의 드림카였어요. 첫 시작부터 벌써 6대에 이르기까지 그 매력이 변함없이 한결같아 저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티티라는 올드카는 둥글둥글한 제 성격과 잘 맞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원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차인데 모든 부분의 디자인이 둥글둥글해서 20년이 지나도 결코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매력 있는 티티와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Audi TT



신준섭(이하 신): 저는 1996년도에 출시된 기아 엘란이라는 차량과 현재 함께하고 있고요. 엘란을 타기 전엔 티뷰론 터볼런스라는 비슷한 연식과 종류의 차를 오랫동안 탔어요. 엘란과 티뷰론은 어린 시절부터 드림카였고 첫 차로는 티뷰론 터볼런스를 타게 됐습니다. 제가 첫차를 처음 탈 때도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었는데, 길가에 신차가 다닐 때 남들이 잘 안 타는 차라는 희소성과 이만큼 관리해서 오래 탄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탔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닌 나와 같이 감정을 나누는 그런 존재처럼 다가와 준 티뷰론 터볼런스 차량이 있었기에 기아 엘란과도 인연을 맺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기아 엘란은 96년도에 출시해서 99년도까지 공식적으로 1,055대 판매되었고 판매가격도 국산 최고급 세단과 차이가 없었는데, 국산차 중 유일한 오픈카며 외관이 철관이 아닌 FRP라는 플라스틱 비슷한 특수한 소재로 되어있고, 팝업 라이트가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라이트를 켜놓으면 숨어있던 라이트가 올라오는 게 큰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 올드카가 길거리에서 희소하고 또 낯설다는 점에서 오히려 요즘 더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인상 깊은 반응이 있었을까요?

슬: 반응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할아버지들이나 아저씨들이 지나가면서 추억이나 좋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세요(웃음). 주차 관리 요원 분이나 발렛 요원 분들도 차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주행 중에 멈춰 있으면 잠깐 창문 열고 차 멋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엄지를 많이 내밀어요(웃음). 창문, 엄지,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앞에 와서 엄지(웃음). 그런 일을 처음 겪었을 때 묘하게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카: 관심이 차에 집중되는 것도 슬리피 님께는 새로운 즐거움이었을 것 같아요.

슬: 나쁜 관심이 아니라 좋은 관심이어서 좋았죠. 개성 있는 옷을 입거나 새로운 패턴, 특이한 색깔의 옷을 입는 것도, SNS를 하는 것도, 저는 관심을 주고받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 그런 관심이 즐거워서 타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 장진택 유튜버 기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자동차 유튜버 분들과 세피아를 촬영하게 된 적이 있는데요. 국산 올드카를 썬차. 그지다.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는 와중에 제가 솔직하게 나는 관심받고 싶고, 사람들이 보는 게 좋고, 아 그냥 돈 없어서 타는 거 맞다. 이런 부분들을 말했거든요. 오늘 함께 인터뷰 진행하는 친구들도 20대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이런 모습을 멋있게 봐주더라고요.

카: 어떤 시선에 상관없이 자기 취향에 맞는 걸 즐기겠다는 솔직한 모습이 무척 건강한 태도처럼 보여요.

슬: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줘서 자신감을 더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카: 올드카 동호회에서 공로패까지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슬리피 님이 올드카를 운전하시는 것을 보고 다른 올드카 차주 분들도 용기를 내시게 된 걸까요?



Kia Elan



슬: 아무래도 누군가는 무시를 당했을 테니까요. 제가 나가서 당당하게 멋있잖아요! 외치니까 사회적인 시선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 게 아닐까 싶어요.

카: 김동만 팀장님의 티티는 반응이 어땠을까요?

김: 저는 같은 티티를 벌써 6대 타고 있다 보니 이제는 올드카에 대한 주변 반응보다는 같은 차종에 대한 매력을 대체 얼마나 느끼기에 6대나 탈 수 있냐는 말들이 더 많아졌어요(웃음). 제가 생각해도 같은 차만 6번 타는 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제 티티를 항상 나만의 티티로 튜닝을 하는 편인데, 이제는 가끔 알아보고 아는척해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차를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고 하는 반응이 늘 즐거워요.

카: 준섭 님은요?

신: 반응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먼저 생각나요. 처음에 부모님이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보다는 상대적으로 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어서인지 오래되고 부품도 없는 차 왜 타냐고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 타니까 이제는 포기하신 것 같아요(웃음). 비싸게 산다는 사람 있으면 팔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친구들이나 회사 분들은 기회되면 항상 태워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나가서 신호 대기 중이면 무슨 차냐고 물어 보시는 분들도 많고, 주차장에 주차해두면 국산차 중에 이런 차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오랜만에 본다면 추억에 잠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Old CAR DREAMING



카: 지환님은 차가 여러 대시니까 더 다양한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 그런 편이죠(웃음). 연령대나 성별에 따라 반응이 다른 점도 재밌는 것 같아요. 엘란 같은 경우에는 울드카 느낌은 아니지만 디자인이 약간 슈퍼카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오픈하고서 어디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어린 친구들 있는 곳을 지나게 되면 아주 난리가 나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페라리다! 이러면서 (웃음) 소리치더라고요. 엘란이 빨간색이면 반응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이 충격적이고 재밌었어요. 보통 엘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편이고, 각그랜저를 타고 나가면 제 또래나 아니면 중장년층 어르신분들이 말을 거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 나갈 때 이 차를 새 차로 샀는데, 하면서 추억을 얘기해 주시는 어르신분들도 계시고요. 티코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주유하고 있으면 이거 연비 잘 나오지 않아요? 어릴 때 이 차 탔는데, 하는 분들도 계시죠. 대부분 첫차로 티코를 구입한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의외인 건 티코를 어린 꼬마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차가 되게 앙증맞고 귀엽게 생겼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티즈는 같이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카: 네 분 모두 울드카와 함께 많은 길을 달리셨을 것 같아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길이나 남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곳이 있으실까요?

하: 제가 좋아하는 길은 저희 집 바로 앞이에요. 청주에 가로수길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가로수길 생긴 것이 다 뻥하기는 한데(웃음) 저희 집 앞쪽에 있거든요. 심지어 제 출퇴근 길에 자리하는 길이에요. 엘란을 오픈하고서 이 길을 다닐 때, 정말 기분이 좋아요.

김: 저는 어떤 길이든 누구와 함께 달렸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좋은 길을 하나 꼽아보자면 개인적으로 6번 국도를 정말 좋아해요. 강과 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천상의 드라이브 코스라 생각합니다. 달리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신: 저는 사실 차를 아낀다고 많은 곳을 다녀보진 못한 것 같아요(웃음). 차 가져온 지 얼마 안 되고 봄에 소프트탑(천장)을 오픈하고 가평 산속 도로 중에 벚꽃나무로 이루어진 도로를 갔는데, 벚꽃잎이 차 안으로 흩날린 적이 있어요. 순간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 도로가 하얗게 빛나며 영화 속 장면을 달리고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 꿈같고 또 돌아와서도 잊을 수 없었어요. 웬만한 자동차로는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슬: 음 저는 딱 하나만 뽐기가 쉽지 않네요. 저 차를 가지고 속초, 가평, 양평 이런 곳도 가고 좋았는데요. 저는 특이하게 각그랜저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차를 영상으로 남겼잖아요. 한남동에서 성수동 가는 쪽에 로터리 같은 게 있어요. 터널은 아닌데 강변북로 쪽에 열려있는 길, 저는 그 길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서울권 안에서 남산 1호 터널 이런 곳 말고는 그런 공간이 잘 없거든요. 열려 있는 그런 곳인데, 들어가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 뮤비에도 남겨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 영상을 제가 또 중점적으로 찍어달라고 했거든요. 전문 촬영팀이 와서 그랜저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어줬는데 우연히 현대 자동차 광고 감독님이 찍어주셨어요. 원래 현대 자동차 신차가 나오면 광고를 찍으시는 분이시니까 장비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막 제가 수소문한 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웃기게도 옆집에 살고 계시더라고요(웃음). 처음엔 그냥 연락이 왔어요. 차 멋지다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알고 보니 영상 감독님이었던 거였죠.

카: 그랜저 뮤직비디오 하나 슬리피 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애정이 음악의 길로 연결되면서 어떤 교차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흥미로웠거든요. 음악 장르도 랩 트롯 등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새로운 길은 어떻게 찾고, 또 그걸 지속할 힘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슬: 길이 인생의 어떤 방향이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길을 걷는 건 맞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이라고 해봤자 한 10년 전 20년 전이지만(웃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좋은 글귀에 항상 한 길만 가라(웃음) 한 우물을 파라, 한 길로 걷다 보면 뭐가 있을 것이다. 이게 어떤 국룰로 통했잖아요. 좌우명처럼 써도 될 정도로 많은 말이었는데 이제 세상이 변했어요. 저는 음악 안에서도 여러 장르를 봤고, 음악을 하면서 방송인이 됐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라디오 DJ와 클럽 DJ까지 하거든요. 열정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추진력도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살면서 뭔가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슬: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삶을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삶으로 살기 위해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경제적인 이유도 당연히 이유가 되었죠. 물론 개인적인 만족이 더 컸고요. 여러 길을 파다 보니 사람들이 좋은 길로 봐주고, 그게 또 일로 연결돼서 수익이 나기도 했어요. 각그랜저는 저렴하기도 하고 고치는 것도 재밌고 또 제가 좋아하고 재밌어서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기로 많은 방송 관계자분들이 찾아주시고 이렇게 카페베네와 인터뷰도 하게 되고, 최근에는 또 큰 프로젝트로 연락이 와서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하게 됐어요. 가만 보면 제가 새로운 길을 파서 좋았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유지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카: 말씀을 들어보니 한 분야에서 어떤 결과를 내신 건 항상 열심히 해오셨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슬: 트로트를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욕을 했지만요. 그걸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DJ를 시작했을 때도 재밌어서 했는데 나중에는 내로라하는 페스티벌까지 서게 되고요. 물론 제가 노력을 안한 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즐기려 하다 보니깐 노력도 하게 되고 실력도 자연스럽게 늘게 되었죠. 저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도전하길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울드카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누가 쉽게 가져오겠어요. 잘 고장 난대, 수리비가 많이 든대,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두렵죠. 하지만 가져와보지 뭐, 하면 어떻게든 되는 거죠.

카: 일단은 한다는 말씀이 와닿네요.

슬: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길을 나아갈 때 저는 항상 동반자를 찾아요. 나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제가 존경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진심을 보이면서 배워요. 디제잉도 마찬가지로요. 어린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배우고, 트로트 또한 레슨을 받았어요. 영탁 씨한테 연락해서 그냥 말이 라도 해보자, 이렇게요. 저는 뭐든지 관심이 생기면 일단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울드카 쪽에서는 각그랜저 관련해서 제가 지환씨에게 연락을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차를 좋아하고, 이런 차를 가져오고 싶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연락을 했죠.

카: 동반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지 반려견 퓨리도 떠오르는데요. 퓨리와 함께하며 반려견 페스티벌, 반려견 마라톤에도 참가하시고 팻캣 홍보대사까지 임명되신 적이 있더라고요. 유기견 이동 봉사도 하시고 퓨리를 디자인해 만든 옷을 판매해 수익금 일부를 유기견을 위해 기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 슬리피 분들이 유기견 사료로 420kg를 기증한 적까지 있더라고요. 슬리피 님께 반려견 퓨리와 함께하는 길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슬: 퓨리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다른 반려견 친구들에게까지 연결되며 많은 활동을 하게 됐어요. 퓨리가 제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면서 삶을 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관심으로 봉사도 하고 사료도 나눠주게 됐고요. 퓨리와 함께하는 순간부터는 생각도 바뀌게 됐고 생명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됐어요.

슬: 반려견, 반려묘, 그 작은 동물 하나가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퓨리는 항상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퓨리와 함께하기 전에 작은 행복에 대해 깊이 고민한 적이 있는데요. 행복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던 시기에 퓨리와 함께하며 어떤 사랑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퓨리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생각도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카: 어느덧 질문이 몇 남지 않았는데요. 울드카를 탄다는 것은 기억하는 일과 닮아있는 것 같아요. 울드카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을 특별하고 소중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내가 걷고 있는 이 삶의 길 위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항상 변함없이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요?

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기쁨, 슬픔, 배신, 안타까움 등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울드카는 저에게 기쁨만 가져다준 것 같아요. 고장이 나서 고쳐주면 꼭 그만큼의 좋은 감정들과 추억을 제게 주고, 애정을 쏟은 만큼 나에게 즉각 반응해 주었죠. 저는 그게 울드카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오랜 시간 드림카로 생각하고 있던 이 티티를 처음 만난 순간, 그 순간의 순수했던 마음을 오래 기억하고 또 간직하고 싶어요.

신: 저 역시 어릴 적에 엘란을 보며 '이 차를 꼭 타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타면서 22년도의 도로를 달리고 있으면 꼭 꿈을 이룬 것 같으면서도 저 혼자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을 타고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울드카를 보면 출시년도 딱 그 시절의 유행과 감성이 그대로 묻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저의 엘란도 저의 어린 시절에 출시된 차라서 그런지 차를 보고 있으면 그 시절 느낌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행복했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싶고, 또 엘란과 함께한 시간들을 오래 추억하고 싶어요.

하: 저는 사실, 지금 이 순간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인터뷰도 하고 있는 이런 순간들이요. 제게 자동차는 물건이지만 가족 같은 존재 같아요. 차와 함께하는 이 순간들 모두,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순간이 제게는 모두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에요.

카: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현재진행형이라니 새롭고 멋지네요!

하: 제가 엘란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내성적이었어요. 제가 웃는 모습을 보일 정도면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신기해할 지경이었으니까요. 말도 많이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엘란이라는 차를 구입하고 그랜저를 구입하면서 방송 촬영이나 인터뷰를 받기 시작했어요. 제 성격이 약간은 외향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을 이제는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차들이 제 성격을 좋게 바꿔준 것 같아요. 블로그로 제 추억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영상이나 인터뷰로 추억을 남기면 차와 함께하면서 후회 없는 자동차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기에 현재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좋아요.

슬: 저는 얼마 전에 유퀴즈를 봤는데 디올 디자이너 분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한 분이셨어요. 그때 잠깐 생각에 잠기면서 내가 인생에서 어느 한순간을 꽃을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언더그라운드 생활이 떠올랐어요. MBC 예능 대상 신인상도 받고, 방송에서 상을 받고, 데뷔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했는데도 결국은 언더그라운드 생활을 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너무 돈이 없어서 그땐 정말 라면만 먹던 시절이었는데 말이예요. 겨울에는 보일러도 안 들어왔지만 어떤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열정 하나로 가득했던 순간이라 기억에 선명히 남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부산에서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진짜 짧게 1년 반 정도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활동 당시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래퍼들을 다 만났죠. 부산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모든 래퍼들이 공연을 왔는데 친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만나게 되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그 친구들이 저를 끌어줬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열정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올드카 쪽으로는 되게 열정이 가득 차 있어요(웃음). 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어서요.

카: 혹시 네 분은 올드카와 해보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실까요?

신: 차와 함께 프로필 사진도 남기고 싶고, 해외는 무리더라도 제주도 해변가 드라이브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한국에서 활동하는 가수 중에서 유키카라는 가수가 있어요. 제 차량으로 그분 뮤직비디오에 한번 나가 보는 게 소원입니다. 제가 드라이브할 때 그분 노래를 엄~청! 즐겨 듣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몇 번 제 차로 다른 가수분들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정을 주고 직접 고쳐온 차들이 어떤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 흥분되고, 기분이 좋았어요. 우연히라도 유키카님의 뮤직비디오에 제 올드카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행복이 될 것 같아요. 나의 드라이브를 즐겁게 해준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에 내 차가 출연한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Old Car Driving



김: 앞에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지만 저 역시 제주도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올드카를 잘 복원해서 개성은 그대로 살리면서 올드카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상태로 꼭 완성을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티티와 함께 제주도를 달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카: 올드카와 함께 제주도를 가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네요(웃음). 슬리피 님은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신가요?

슬: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고, 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웃음) 저 또한 배 타고 들어가서 제주도를 돌아보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 중 하나예요. 이제는 제주도에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오케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차를 렌트 해서 제주도 돌아다니면 풍경도 좋고 기분이 진짜 좋잖아요. 제주도에서 각그랜저와 사진도 많이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각그랜저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직까지 매물도 20개씩 있는데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인식이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타는 차를 떠나서 국산 올드카를 보는 시각이나 시장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전문가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어쨌든 올드카라는 이 문화가 부자 문화라는 인식이 있어요.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럼에도 고급 외제차는 우려보면서 국산 차들, 특히 올드카들의 메리트가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저의 각그랜저가 국산 올드카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카: 인터뷰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소중한 시간 내주신 네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웃음), 올드카는 내게 어떤 존재인가요? 한 마디로 부탁드릴게요.



하지환

취미면서 전체다.
저는 차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어요.
다른 취미가 없기에 취미면서 전체다.
인생의 전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준섭

가족이나 친구다.
남들에게는 그냥 오래된 차로 보겠지만 차는 배신을 하지 않잖아요.
힘이 되는 한 저도 끝까지 이 차와 함께하려고 합니다.



김동만

힐링이다.
올드카인 티티는 내 삶의 힐링 그 자체입니다.



슬리피

아이덴티티다.
나를 가장 잘 보여주고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지요.



피크닉, 좋아하세요?



봄과 여름,
카페씨는 계절을 건널 때마다
피크닉의 문을 노크해요

문을 열면 쏟아지는 햇빛과 탁 트인 풍경
따뜻한 바람, 유유히 흘러가는 비눗방울
한겨울 잊고 지낸 초록 풍경이 보여주는 낯선 설렘

그리고
그 문 뒤에는 언제나 절친한 친구 베네씨가 있었죠



둘은 만나 다정한 바람을 맞는 몇 가지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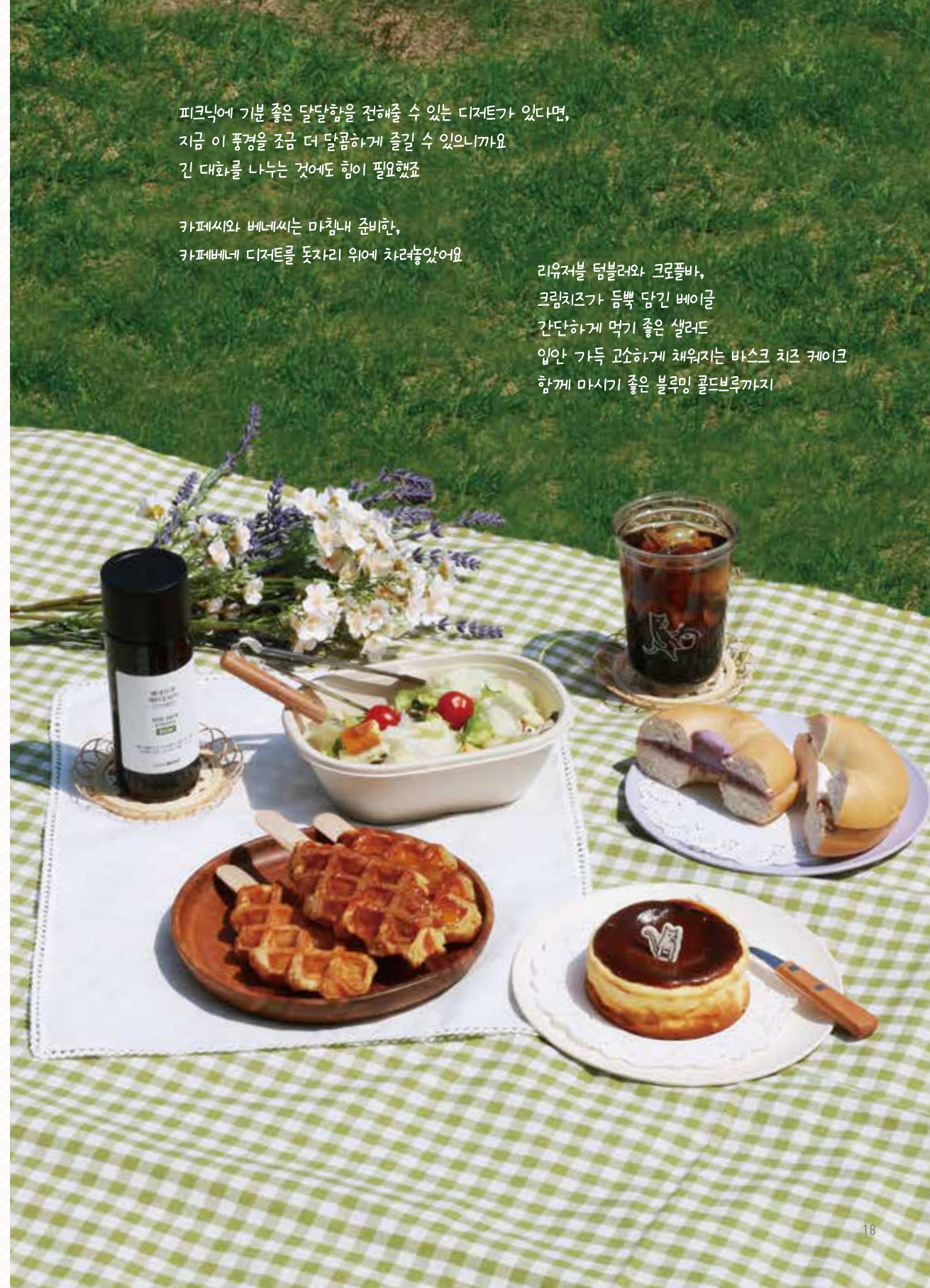
첫 번째, 사방이 탁 트이거나
두 번째, 풀 냄새/혹은 자연의 냄새를 맡을 수 있거나
세 번째, 높은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나무

마지막으로는,
맛있는 간식이 필요했죠

피크닉에 기분 좋은 달달함을 전해줄 수 있는 디저트가 있다면,
지금 이 풍경을 조금 더 달콤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긴 대화를 나누는 것에도 힘이 필요했죠

카페씨와 베네씨는 마침내 준비한,
카페씨네 디저트를 돛자리 위에 차려놓았어요

리유저블 텀블러와 크로플바,
크림치즈가 듬뿍 담긴 베이글
간단하게 먹기 좋은 샐러드
입안 가득 고소하게 채워지는 바스크 치즈 케이크
함께 마시기 좋은 블루밍 콜드브루까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피크닉은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피크닉을 한다는 것은, 거리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들이
 고요하게 내뿜는 숨소리
 따사롭게 빛나는 햇빛이 피부 위에서
 행복으로 툭툭 터지는

카페세사와 베네씨가 즐긴,
 카페베네 피크닉을 오늘 만나보세요





가보지 않은 길

- 돌레꾼의 길

글 사진 김규리

3년 전쯤, 내가 사라졌다.

분명 어딘가를 걷고 있었지만 발걸음 소리마저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고, 온통 회색뿐인 풍경 속에 나까지 회색으로 덧칠되며 무색무취의 인간으로 덩그러니 세상에 놓여 있는 것 같았다.

남들이 내게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현재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지금을 잘 견뎌내고 있는 걸까, 해소되지 않은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천천히 차오르는 것 같았다. 나조차도 나를 응원하지 않는 시절이었다.

나만 힘든 걸까? 힘들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주변은 점점 더 흐려져갔다. 일상에 예기치 않게 기회가 찾아와도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잦아졌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다시 한번 설렘을 맛보고 싶었으나 두려웠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낯섬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고 살아온 시간이 길었다. 사실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까지 했다.

두려움과 설렘, 두 감정의 줄다리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손을 놓고 있던 그때 그 시절 나를 지배한 물음은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였다.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내 삶에 던져진 이후 나는 답을 찾는 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럼, 한번 걸어 봐요”

그 무렵, 내게는 걷는 즐거움이 인생을 얼마나 활력 있게 해주는지에 관해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다. 정서적으로 힘들 때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때는 걸으라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의심부터 했다. 그냥 걸어 다니는 건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다 코로나가 찾아왔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편한 친구들조차 쉽게 못 만나는 상황이 되자 어느 날 속은 샘 치고 한번 걸어볼까 싶었다. 걷는다는 건 아무런 준비가 없어도 되고, 언제든지 가볍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건강도 챙겨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게 바로 걷기였다.

나는 내 끈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어서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 시작은 가볍게 지하철 두 정거장 정도의 거리를 걷기로 했다. '걷기'를 생각하며 걷는 것은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다.

걷기는 자연스럽게 걷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 가능한 것 중 걷기만 한 것이 있을까?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감정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없는데 걷기는 힘들 땐 여기까지만 하자고 멈출 수 있어 좋았다. 나는 차근차근 걷기의 강도를 올려나갔다. 우리 동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점점 거리를 늘려 갈수록 나의 무거웠던 짐들도 1g씩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걷던 길에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했다. 길도 다양해졌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둘레길을 찾아다니며 누구와 걷느냐에 따라 같은 길도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배웠다. 한 사람의 세월이 그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 묻어 나오는 것 같기도 했다. 다른 사람과 발걸음을 맞추다 보면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되는 기분이 들었다.



이미 알았던 사람이라도 걷기를 하며 진솔한 이야기들을 편하게 나누기도 했다. 대화의 공백은 억지로 메울 필요가 없었고, 가끔 그런 공백이 생길 때면 새들의 지저귀, 바람 소리가 대신해서 부족한 이야기를 채워주었다. 길을 걸을 때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에도 사람에게서 오는 피로감, 상처가 조금씩 치유가 되는 기분이 들었다. 나와서의 다름을 좀 더 깊게 인정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여유도 생기게 됐다. 회색이었던 세상도 3년간 걷은 풍경에 맞춰 점점 밝은 색상을 되찾아갔다.

최근 중학교 시절을 함께하고 나의 20대를 함께 보냈던 친구를 거리두기 해제 이후로 3년 만에 만난 적이 있다. 자연스럽게 옛날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에 친구는 문득 중학교 때 내가 해맑고 사교성 있는, MBTI E 성향의 아이였다는 말을 했다. 덧붙여, 스무 살 이후부터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내향적인 I의 성향으로 바뀐 거 같다고 했다. 그러고는 연이어 안 본 사이에 다시 너의 밝음이 살아났다고 생기 있어 보인다고 했다.

“걷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

나는 친구에게 그 이유를 걷기라고 힘주어 말했다. 걷는 습관이 밝고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했던 예전 모습의 나를 되찾아주고 있었다.



삶의 방향성을 잃고 헤맬 때,
무심코 걷던 길을 통해서 마주한 글귀가
때로는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주기도 한다.
3년 전쯤 내가 힘주어 고민했던,
'나다움'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는 요즘
나답게 힘 빼고 걷고 있는 중이다.



언젠가, 커피가 사진기가 되어준 적이 있어요. 보통 사진기는 그날의 풍경을 단편적으로 찍어 주잖아요. 그런데 커피는 창문 바깥에서 흔들리고 있는 꽃들의 비밀스러운 속삭임이나 나와 내가 함께한 순간의 고요함 같은, 그런 장면을 선명하게 담아 제 마음속에 팩스로 보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억할 만한 장면에 플래시를 터뜨려주었던 커피가 나중에 마음속 추억으로 꽃 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개인적으로 커피를 마신다는 건, 맛과 향으로 기억되는 순간과 장면을 가지게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맛에 개성과 또렷한 색채, 기억이 더해지면 그 순간은 분명 꽃이 피는 순간과 닮았을 거라고 믿고요. 커피와 함께한 장면들이 선명하게 피어난다는 점에서 저는 이 커피의 이름을 블루밍 블렌드라고 짓게 됐어요. 꽃은 사계절 내내 피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꽃을 기다리고 또 추억하니까요.



블루밍 블렌드의 특징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선명한 색감과 기억으로 다가오는 스페셜티 커피예요. 입안에 꽃이 만개하는 듯 청량하고 상큼한 과즙 맛을 카라멜의 단맛과 함께 전해주죠. 어떤 커피들은 새롭고 오래된 장면을 동시에 건네줄 거예요. 블루밍 블렌드를 맛보는 고객 여러분들께서 그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품고 블루밍 블렌드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억과 오래 추억할 기억을 건네주는 커피, 사계절 내내 선명한 장면으로 피어날 커피, 블루밍 블렌드로 기분 좋은 장면을 선물받아보세요. 우리가 만난 꽃의 사계절을 오늘 향긋하게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 카페베네 블루밍 블렌드 로스터 최진수



맛과 향으로 어떤 장면이나 순간을 떠올리신 적 있으신가요?

특정한 향으로 지나간 추억을 떠올리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는데요. 냄새로 어떤 시절을 회상하게 되는 이 현상을 “프루스트 현상”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스치듯 지나친 장소나 사람들 틈 속에서 특정한 향을 맡고 뒤돌아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외국에서 맛봤던 낯선 향신료가 그리워 외국 음식점을 찾아다니던 적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커피의 향 또한 고유하다는 점일 거예요. 어떤 커피를 어떤 곳에서 마셨냐에 따라 그 향이 기억 속에 진하게 남기도 하죠. 블렌딩 커피가 전해주는 고유한 맛과 매력으로 늘 같은 카페에서 같은 커피를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반겨주는 커피향이 아늑한 추억의 장소처럼 묘한 편안함을 주는 경험도 해보셨을 거고요.

하지만 어느 날 멀리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 커피의 향으로 추억될 수 있는 모든 장면들을 잃어버리는 기분이 들지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기억들을 선명하게 감각하기가 어려워지겠죠. 향으로 기억하는 일들은 거리에 제약이 있으니 한동안 그날 만났던 맛과 향을 그리워하며 조금 슬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페베네는 이번 블루밍 블렌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커피가 사진기라면, 그 사진기의 공간 또한 무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기는 이동성을 가지니까요. 맛과 향으로 기억되는 장면 속에는 분명 집이라는 공간도 있죠. 블루밍 블렌드가 집에서 화사하고 밝은 감성으로 피어난다면 우리는 집에서도 달콤한 커피 향으로 한결 나은 기분을 지속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카페베네는 그런 점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장면과 설레는 추억을 언제 어디서고 만나볼 수 있는 선물세트 MD를 제작하며 블루밍 블렌드를 택했어요. 물론, 블루밍 블렌드를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해야 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이 바로 커피백이었습니다. 따듯한 물만 부어주면 간편하게 완성되는 커피백으로 블루밍 블렌드를 만나보실 수 있죠. 담아 마시기 좋은 국내산 도자기 재질의 머그 또한 세트에 함께 구성했어요. 또한 손 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선물세트로 건네는 순간 꽃 피는 우리만의 장면을 미리 상상하실 수 있죠. 디지털로 넘어온 이 시대에서도 손편지가 감동을 주는 건 아마 누군가를 생각하는 과정이 다정한 흔적처럼 남아서가 아닐까요.



블루밍 블렌드의 또 다른 선물세트 구성은 드립백이었어요. 봄날의 추억을 가장 포근하고 다정하게 전해주는 굳세나 작가님과 모수 콜라보로 탄생한 텀블러를 함께 구성하여 선물세트로 완성했죠. 봄의 작가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굳세나 작가님의 캘리그래피로 봄꽃 감성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기분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향긋한 꽃 감성 그대로 블루밍 블렌드 선물세트 출시하며 지금 이 순간을 봄날의 꽃향기처럼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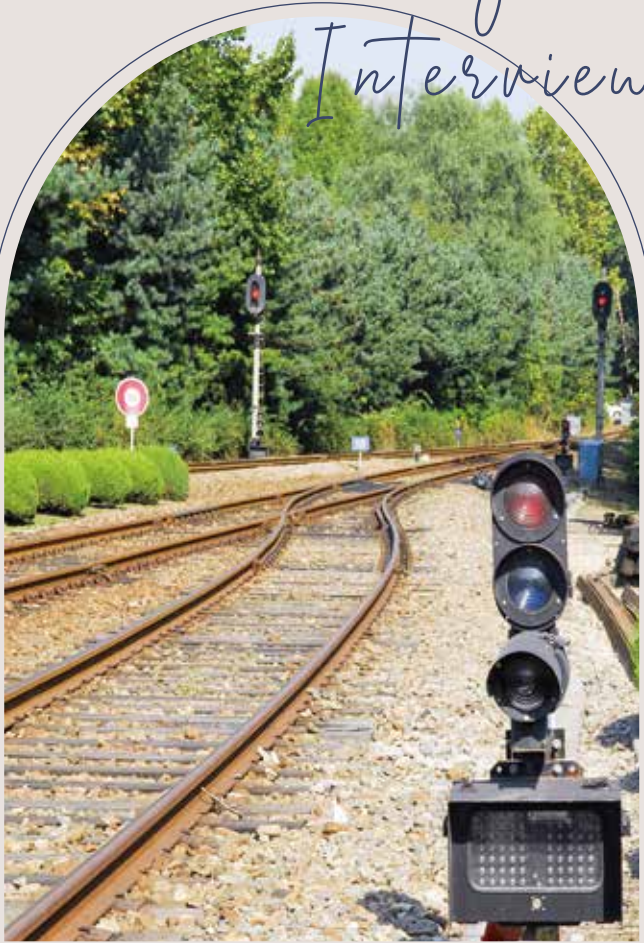
블루밍 블렌드는 또렷한 개성을 지닌 스페셜티 커피인데요. 카페베네에서 10년 넘게 거래를 하고 있는 브라질 이파네마 지역의 생두와 에티오피아 지역의 내추럴 프로세스를 거친 스페셜티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맛은 레드베리 계열의 산미와 진한 카라멜의 단맛, 과즙 100% 주스를 마시는 듯한 청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렷하고 선명한 향미와 개성으로 새로운 추억을 건네주는 블루밍 블렌드 커피를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하는 장면이 향긋하게 꽃 피며 문득 생각나는 달콤한 꽃향기를 입안 가득 남겨줄 거예요.



쉽고 재밌는 커피 이야기가 필요한 순간,
Hello Again, 카페베네

Blooming Interview



봄날에 도착한 사진첩

"사계절 내내 꽃 피는 추억을 선물하는 커피
상큼하고 밝은 기분을 건네주는 커피
블루밍 블렌드와 함께
나의 하루를 꽃으로 채워보세요"

카페베네 대표 로스터
최진수 대리님의
커피향 가득한 기차길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베네에서 커피를 담당하고 있는 최진수라고 합니다.

생두 품질 평가부터 블렌딩 조합, 커피 메뉴 개발, 커피 MD 개발 등 커피의 다양한 모습을 만드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중 로스팅도 직접 하고 있으니 카페베네 대표 로스터라고 봐 주시면 좋습니다(웃음).

로스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커피를 볶는 직업입니다. 생두의 품질이나 상태 등을 본 후, 커피가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맛을 이끌어내는 게 로스터의 일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수 대리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콜드브루 블루밍 블렌드를 출시하셨죠. 출시를 앞두고 특별히 고민하신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커피를 고를 때 맛, 향, 가격, 공간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하고 커피 한 잔을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번 블루밍 블렌드를 개발하면서 제가 즐겁게 마실 수 있을 커피를 생각하며 개발했는데요, 생두의 가격이나 생두 등급이 스페셜티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그때 이런 커피를 마셨는데 어디서 마셨지? 누구랑 마셨지? 이런 질문이 들게 하는 커피가 저는 참 좋았어요, 커피를 마시면 맛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장면을 더 많이 추억하는 편이거든요. 좋은 커피는 기억에 남는 장면과 추억을 건네줬던 경험으로, 마시는 분 모두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콜드브루 블루밍 블렌드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로스터로 일하면서 의미가 깊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웃음) 2019년 제3회 SRC(Stronghold Roasting Championship)에서 챔피언이 되어 우승한 것이 여전히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회사의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 속해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이지만 해보고 싶었던 도전적인 로스팅은 시도 못하던 중에 한편으로는 내가 생두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건가? 내 커피가 맛있는 커피일까? 그런 고민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지속될 즈음 대회에 나가 우승한 것이 제 갈등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때 참가 인원이 거의 200명 정도 되었는데 심사위원분들이 제가 볶은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인정을 해주다 보니 되게 의미가 깊었죠. 사실 맛이라는 것에 개인 취향이 있지만, 결과로는 제가 볶은 커피가 맛있는 커피다.라고 인정해 주는 순간이었다고 느껴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나만의 개성으로 표현한 커피가 인정을 받으니까 내가 잘 하고 있구나.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 의미가 깊었습니다.

로스터로 일하며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로스터는 시장에 원두를 출시하기 위해 스스로 많은 것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배합도 해보고, 볶음 정도도 바꿔보고, 작업도 다르게 해보아야 하는데요. 로스팅적인 스킬을 써서 생두가 가진 어떤 맛을 줄이고 올리고 해도 소비자화 전문가로서의 로스터가 서로 원하는 부분이 많이 달라서 그 접점을 찾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조금 더 특이하고 다채로운 커피를 만들고 싶어도 대중성과 시장성을 염두에 뒀야 하는 거죠. 새로운 것을 시장에 내놨을 때, 개성이 강하면 대중성이 없어지고, 대중성이 높으면 개성이 약해지니 항상 고민이 많이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부하고 전문적인 부분을 어떻게 대중적으로 풀어낼지에 대해 새로운 흥미거리를 끊임없이 만들면서 스스로한테 숙제를 계속 줬어요. 그냥 직업적인 돈벌이 수단 이 아니라 취미생활처럼요. 좋아하는 일니까 그냥 계속 좋아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면서 이겨냈다는 말이 인상 깊네요. 혹시 로스터의 필수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사실 센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웃음).

본인의 감성이나 개성 같은 걸까요?

필수 역량이라고 말할 건 없어요.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다만 뛰어난 로스터가 되려면 필요한 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7년 정도 커피를 볶았지만 한번 배운 사람이 볶았을 때 제 원두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이처럼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뛰어난 로스터는 자기가 추구하는 맛을 어떻게 로스팅 하면 되는지 아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로스팅을 처음 배우더라도 대처능력에서 센스가 좋으시더라고요. 센스라고 표현하니 좀 어려운데, 쉽게 눈치가 빠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남들이 시켜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보다 배운 걸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눈치 빠른 친구들이요. 그런 눈치 빠른 친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맛을 금방 찾고, 그 맛을 로스팅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빠르게 찾아내더라고요. 아 물론, 본인만의 개성 역시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집은 있는데 아집은 없어야 해요. 자기가 원하는 바는 확고하게 있어야 하는데 조언이나 경험을 무시하는 건 없어야 하죠. 자기가 느끼는 맛을 남들에게 잘 말하고, 잘 듣고, 각자의 맛을 존중하는 태도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너는 그런 맛을 느끼는구나, 나는 이런 맛이라는 생각이 들어 정도요(웃음). 넌 틀렸어 내가 맞아 이런 건 조금 불건강한 태도죠. 커피는 항상 새로운 것을 수용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귀를 닫는 순간 커피는 고이게 되니까요.

요즘 진수 대리님이 커피 외에 특별히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 퇴근 이후 남는 시간에 패션 업계에서 나오는 룩북을 봐요. 최근에 8~90년대 유행하던 옷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 재밌더라고요. 단순하게 옷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문화라는 키워드로 옷에 접근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썩한 원색 색감의 아이템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음로나 디저트들도 트렌디한 건 진한 노란색, 진한 초록색 등 선명한 색깔을 띠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패션이라는 것이 그 해를 아우르는 문화적 키워드가 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패션쇼와 룩북을 보면 전반적인 문화를 볼 수 있는 것 같아 재밌어요.

이번에 출시된 블루밍 블렌드도 선명한 맛을 자랑하지 않나요(웃음).

아무래도 스페셜티 커피 대부분이 선명한 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블루밍 블렌드도 선명하고, 개성이 또렷한 맛이죠. 조금 건방져 보일 수 있는데(웃음) 커피 씬에서 가장 트렌디한 사람이 만든 커피를 고객 여러분들이 꼭 마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대리님이 마셨던 커피 중 가장 맛있었던 커피는 어느 것이었나요?

대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내추럴 커피를 마신 적이 있어요. 블루밍 블렌드도 내추럴 가공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그때 그 커피를 지금 마셔보면 완벽한 맛은 아니겠지만 제 인생에서 와! 커피 재밌다, 라는 인식을 처음으로 강렬하게 준 커피라 기억에 남아요. 담당 교수님이 직접 내려준 거였는데, 친구들도 다 같이 놀란 기억이 나요.

최근에 소소하게 행복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제가 향을 맡는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향에 민감해졌는데요. 얼마 전에 향수 공방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기성 제품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향을 제가 원하는 향으로 조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향수를 입으면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수 대리님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가고 싶은 길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한 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정말 막연하게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서 내 이름으로 된 커피를 카페에 납품하다 보면 내가 볶은 커피가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달려온 적이 있었고, 우승을 목표로 한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따라오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죠. 운이 좋아 빠른 시간에 로스팅 대회에서 상을 탔고, 우승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더 욕심이 생겨 국가대표가 돼서 세계대회에 나가보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죠. 그런데 현재는 그런 욕심보다는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로스터가 되고 싶다. 이런 친구들에게 제가 배웠던 경험들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들 각자만의 방법론과 해석법이 있을 텐데 제가 걸어온 길을 그 사람의 길과 맞게 하면 해매지 않고 원하는 곳에 조금 더 빠르게 도달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로스터를 꿈꾸는 사람들의 길을 더 넓혀주고 싶은 거죠. 저 또한 그 친구들을 통해 배우고 제 시야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배우는, 그런 것을 통해 제 길 역시 다양하게 만들어가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멈추고 싶지가 않아요. 재밌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진수 대리님의 길은 그야말로 커피 향이 가득한 길처럼 보이는데요. 그 길은 어떤 길과 닮았을까요?

저는 제가 달려온 길을 기차길과 닮았다고 하고 싶어요. 승객을 태우고 시간에 정확히 맞춰야 하니까요. 직업적인 것 때문 인지는 모르겠지만 변수가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웃음). 1분, 1초, 0.1초, 1도, 0.1도, 0.01도 이런 것에 따라 커피 맛도 엄청 달라지거든요. 원하는 기준을 맞춰놓고 벗어나지 않게 볶는 게 로스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저는 여태껏 일을 쉬거나 인생을 리프레시 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쉴 새 없이 달려왔죠. 기차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길로만 쭉 가야 하고 딱딱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제가 로스터로 일하는 모습과 닮은 것 같아 제 길을 기차길에 비유하고 싶어요!



손님들을 가득 채운 기차가 머릿속에 그려져요.
손님들이 원하는 맛의 정류장에 딱딱 정차하는 기차.
한적한 기차라기보다는 손님들로 가득 찬 기차.
앞으로도 그런 기차길을 달려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페베네에 SNS 시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수소문 끝에 찾았는데요,
카페베네 대표 시인 이종관 님의 감성 가득한 시로 잊고 지냈던 나의 감수성을 깨워보세요!

소박한 듯 그렇다고 모자라지 않는
은은한 듯 그렇다고 진하지도 않는

냄새로 떠올리는 풍경들
그리고 눈으로 느껴지는 시간들

— 길 위에서 만난 카페 —

금요일 밤 흥대가 아니다
벗어날 길이 없다
정신이 아득해진다
문이 열리고 파도처럼 덮친다
기어코 나를 검게 뒤덮기 시작한다

— 출근길 9호선 급행 —

사람들이 하나 둘 내 곁을 떠나간다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렸다
떨리고 초조하다
외롭다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저 문밖을 나가면 모든 게 끝나는데
나는 왜 나가질 못하는 걸까?

— 퇴근 —

걸어온 발자취의 흔적보다
내 발 사이즈가 더 중요하고
두 발로 어디를 지나 왔는지 보다
내가 신은 신발의 정보가 궁금할 뿐

— 이력서 —

LEE DONG GWAN

나이는 갓 서른
돈 좋아하지 명예도 좋아하지만
고장 난 벽 시계를 고치려는 상상력 때문에
나는 회중시계를 찬 멋쟁이 신사는 못되네
분침과 시침이 열 번은 더 교차하고서야 집에 돌아가
늦은 밤 배달을 시킬지 말지 고민하다
밥 먹는 것도 일이 된 나날들
먹고살려고 하는 일인데
밥보다 소화를 더 달고 사는 날들
탄력을 잃은 피부보다 더 건조해진 감정
어릴 적 무대 위의 주인공은 늘 내가
그 무게가 견디기 힘들어
이젠 비중 없는 조연
자연스레 묻어가는 게 좋아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우리들 모두 변했지

귀로



작은 손에 꿈을 쥐고 넓은 세상 종이 위에 그렸지
아름답게 뻗어나던 곡선들
그 위로 피어났던 알록달록 영롱함
한 뼉 정도의 작은 공책은
아이의 상상력이 뛰어놀던 푸른 잔디밭
영원할 것 같았던 진한 보라색 밤에
아이는 하얀 물감을 칠해
붉은 해를 띄웠고
회색 먹구름이 몰려올 때면
아이는 무지개색 파라솔 밑에 숨어 꿈을 지켰지

충명

천선영 대리님

여자 축구의 길

FOOTBALL



안녕하세요 천선영 대리님! 풋살을 즐겨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벌써부터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웃음).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서른네 살이고요, 솔로고, 재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성동구 거주 주민에 현재 축구를 좋아하고 있는 카페배네인입니다.

소개가 굉장히 정직하면서도 독특하네요(웃음).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이걸 또 놓쳤어요, 제가 또 술을 좋아하는데(웃음).

풋살 말고도 다른 스포츠도 즐기신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제가 몸으로 즐기는 스포츠를 참 좋아해요.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배구도 좋아했구요. 대학교 때는 검도를 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요새는 또 여자 풋살이 핫하니까 놓칠 수 없었죠(웃음). 풋살이 좋은 게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운동들은 사실 돈이 조금 들거든요. 예를 들면 자전거라든가 검도만 해도 장비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풋살은 풋살화 하나만 있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 트렌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전거, 등산, 배구 등 스포츠와 연이 계속 닿으시고 관심을 이어나가는 것 같은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대학교도 회계를 전공했거든요. 앉아서 하는 일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어느 날은 활동적인 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해본 게 아니니까 어떤 게 나하고 맞는지 찾는 시행착오 과정이 있었어요. 배구가 나랑 맞을까 자전거가 나랑 맞을까 이런 것들을 막 시도하다가 풋살이 나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작년 10월에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구의역에 여자 축구 풋살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체험을 하러 갔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거리가 가깝고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갔다가 이제 정회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후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회원 제도처럼 체계적으로 잘 돼있나 봐요.

되게 잘 돼 있어요. 여자들이 사실 축구를 잘 접하지 못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보면 여자는 피구 남자는 축구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여자애들한테 축구를 시키지 않았거든요. 저도 교육과정에서 축구를 배운 적이 없어요. 아예 발로 공을 다룰 줄 모르고 산 거죠. 저희 여자 축구단은 코치님들이 구성돼 있어야 해요. 두세 분이 계셔서 일대일이든 그룹이든 공을 어떻게 차는지, 발로 공을 어떻게 대야 하는 건지까지 아주 기초부터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게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공을 차고 슈트를 넣고 수비하는 것까지 하나씩 하며 다이나믹하게 성장을 하니깐 그게 재밌더라고요.

발로 공을 차본 적이 없었다는 말이 확 와닿았어요. 축구를 접했을 때의 즐거움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말 즐겁더라고요. 공이 차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신기하고요. 그런데 이게 단체 경기다 보니까 팀워크가 중요해서 내가 못하면 미안한 마음이 더 들 때도 있어요. 물론 내가 이 팀과 하나가 돼서 무언가를 이룬다는 성취감이 풋살의 재미를 더해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현대인이 할 수 있는 스포츠 중에 단체로 하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인간관계도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조깅, 등산도 혼자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되기도 하고요. 혼자 하는 스포츠도 분명 필요하고 좋지만 풋살이나 배구처럼 팀으로 이뤄져서 하는 스포츠나 친구들과 같이하는 모임, 이런 건 만들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스포츠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접하기 쉽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중독성 있었어요(웃음).

생각해 보니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회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약속이니까요. 나 쉬고 싶어 이르면 나 혼자만의 약속이라 쉬게 되기도 하고, 오늘은 좀 안 가고 싶어 이르면 안 가게 되는데 만약에 목요일에 제가 빠지면 풋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경기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 힘든데 가야지, 하고 가야 되는 게 있죠. 막상 가면 재밌고요. 참여가 꾸준히 이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함께 하면 재밌고, 전혀 다른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즐거움도 있어요. 뮤지컬 배우를 하시는 분도, 치킨집 사장님도, 50대 분도, 20대 분도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어요. 저는 직장에 8시간 동안 있잖아요. 건강한 취미를 찾으며 즐기는 것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발로 공을 찬다는 느낌이나 감각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일단은 공을 발로 차서 슛을 넣으면 짜릿해요. 엄청 짜릿하죠. 그것 때문에 사실 축구를 하는 거긴 해요. 저는 초반 삼 개월 동안은 항상 슛을 넣으러 갔어요. 오늘은 꼭 두 골 넣어야지 세 골 넣어야지 이런 목적으로 슛을 넣는 게 즐거워서요. 하지만 요즘은 목표가 조금 바뀌어서 수비에 좀 더 중점을 두는 편이에요. 공을 보기보다 요새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요. 감독님은 이게 더 성장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공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축구라고 했어요. 공만 보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는 축구는 각자 포지션, 각자 위치에서 사람을 1:1로 마킹하고 내 포지션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똑똑하게 하는 것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축구 새내기라 아직 잘 모르지만 공을 찬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운동 구장에서 이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 중이에요. 수비 한 명이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할까. 두 명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까. 저 친구가 어떻게 수비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중입니다.

이미 현명한 축구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옛날에는 단순히 슛을 넣는 행위에만 집중했다면 요새는 사람을 보면서 구장 내 포지션을 보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려워요. 축구하려면 머리가 진짜 똑똑해야 된다고요? 이게 피지컬만 좋아서 되는 운동이 아니에요(웃음).

풋살을 하면서 특별히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풋살 동호회에서 진짜 친한 친구를 하나 사귀었어요. 마침 독섬역 근처에서 근무하더라고요. 사적으로도 많이 만나고 따로 서울숲에서 만나서 돌이서 축구 연습을 하기도 했어요. 확실히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마음이 잘 맞는 친구나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사람이랑은 사실 축구를 해도 즐겁고 밥을 먹어도 즐거울 테니까요. 안나래라는 친구인데, 저는 풋살을 해서 나래를 만났지만, 나래를 통해 축구가 더 좋아진 그런 것도 있어요.



풋살 인원을 모집하는데 힘든 점은 따로 없으셨나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만 받자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저희 모임 모두 자체가 하고 싶으면 누구나예요. 월 3, 4만 원만 내면 누구나 가능. 나이나 지역 등 제한 없이 열려있으니까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풋살들은 한정적인 모임인 경우가 많거든요. 안양 지역, 20대, 특정 직업군. 이런 경우죠. 이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확실히 풋살이 인기가 많긴 한 것 같아요. 요새 진짜 핫한 것 같아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도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새로운 스포츠 활동이나 취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이 있을까요?

사실 굳이 스포츠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스포츠면 물론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취미 활동을 하나 갖는 게 직장 생활을 더 오래 지속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계발도, 자격증을 따는 것도, 퇴근 후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요. 젊을 때 취미 활동을 하나 하면 현명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더불어 나와 소통과도 연결되니까요. 제가 딱 20대 때 직장 생활을 처음 하면서 적응하는 게 어렵고 낯설어서 집회사만 반복한 적이 있거든요. 체력이 아예 없어서 힘들었는데 더 활력이 없어졌죠. 그런데 이제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사람을 만나니까 에너지도 채워지고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화날 것도 좀 덜 내게 되더라고요.

정말 천성형 대리님에게서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땐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대학교 가면 직장에 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의 삶은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표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뭘 해야 되지. 사회생활이 쉽지 않구나 하다가, 1-2년이 지난 후부터 이려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가 나하고 맞는지 운동이 나하고 맞는지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기타를 배워보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해보기도 했죠.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알려면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앉아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이, 혼자 하는 일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성향에 더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움직이길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대리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저는 서울숲을 자주 가요.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은 가요. 집과 가깝기도 하고, 많이 먹으면 소화도 시켜야 하니까요. 저는 서울숲 길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봄에는 벚꽃길이 정말 예쁘고요. 가을에는 단풍이 진짜 예뻐요. 겨울에는 또 눈이 오고 나면 예뻐서 사계절 내내 예뻐요. 여름에는 미러폰드가 참 멋져요. 물이 채워져 있는 공간인데, 나무가 물에 비쳐서 나무가 바닥에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활동적인 걸 해야 되는 순간에는 아무래도 예쁘고 트인 곳이 좋더라고요.

대리님은 인생에서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여기 카페베네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 팀장님랑 재무팀이랑 정말 재밌게 근무를 하거든요. 일이 가끔 고되긴 해도 팀워크가 되게 좋아요. 일을 할 때도 농담을 하며 할 때도 있고요. 서로 의지하는 부분도 크고요. 저는 나중에 이때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근무환경도 좋고요. 다른 팀이지만 유정 대리랑 지향 대리랑 셋이 가끔 한잔 할 때도 있거든요. 같이 놀 때가 있는데, 그때도 정말 좋은 거죠. 나중에 생각하면 그 시절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이 곧잘 생각나잖아요. 지금을 기억하고 싶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지금이 생각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리님에게 풋살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풋살은 삶의 조미료 같은 거죠. 삶을 더 맛있게, 삶을 더 즐겁게. 저는 잘 살기 위해서 풋살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취미를 하나씩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길, 나만의 삶



“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자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길”이라는 영화였다.

1954년 제작된 “길” (La Strada, 참고로 Strada는 이탈리아어로도 길이라는 뜻이다.)은 앤서니 퀴(잠파노 역), 줄리아나 마티나(젤소미나 역) 주연의 흑백 영화로, 초등학교 시절 주말 영화극장이라는 지상파 TV 영화 프로그램에서 처음 보았던 기억이 난다. 어린 시절 이 영화가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중학교 선생님이 내게 앤서니 퀴를 닮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었다. 10대 초에 처음 보았는데 벌써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온 지 50년도 더 지났다는 생각을 하면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고는 한다.

글 정창국

줄거리를 말해보자면 영화 ‘길’에서 떠돌이 차력사 잠파노는 가난한 집안의 정신 장애인인 젤소미나를 바람잡이 복 치는 소녀로 데리고 다니면서 젤소미나를 학대한다. 젤소미나는 결국 잠파노에게서 도망치게 되고,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 잠파노가 우연히 젤소미나의 사망 소식을 들으며 후회의 절규를 하며 영화는 끝이 난다. 그리고 나는 성인이 된 후 영화를 다시 보았을 때 비로소 흑백 영화의 매력을 느끼며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다.

세상에 하찮은 돌멩이라도 쓸모가 있으며, 너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괴로워하는 젤소미나에게 잠파노와 악연인 나무도장이 해준 말이다. 이 대사를 보며 문득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일까? 사실은 한 번쯤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고, 또한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입구정동에 사는 홍길동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일하는 이몽룡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에 다니는 성춘향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는 곳과 직장, 학교 등을 내 이름 앞에 서술하여 나를 소개한다. 사는 동네, 직장, 학교가 남들이 나를 보았을 때 부러워할 만한 곳이면 더욱 나를 자랑하듯이 이름 앞에 내가 소속된 곳을 수식어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설명하던 수식어는 어느 순간 변할 수도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는 그 때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연구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프로이트의 원인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람은 현재의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는 ‘목적론’을 내놓았다. 아들러에 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생에 놓인 문제를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즉 자유도 행복도 모두 ‘용기’의 문제이지 환경이나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아들러 심리학을 ‘용기의 심리학’이라고도 부른다.

이 설명은 아들러 심리학을 대화법으로 설명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의 소개 글이다.

영화를 떠올리고, 책을 읽으며 다시금 떠올린 나의 길은 이전의 길과 앞으로의 길로 나뉘어 있었다. 30세까지는 누구의 자식으로, 그 후 지금까지 약 30년은 누구의 부모로 살아온 세월이었다. 어쩌면 앞으로 30년은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직시할 ‘용기’가 필요한 때인지도 모른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바로 보고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산다면 자유와 행복의 지름길로 향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길을 나아갈 때는 분명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남은 삶을 위해, 나를 위한 길에 막 한 걸음을 내딛기로 했다.





우리동네 빙수맛집



딸기 빙수
망고 빙수



클래식 빙수 리뉴얼



초코악마 빙수
쿠키엔크림 빙수
그린티 빙수



happy!
전 메뉴 젤라또 추가



팥 빙수
커피 빙수



팥 빙수(1인)
초코악마 빙수(1인)



1인 빙수



망고 빙수(1인)
딸기 빙수(1인)
그린티 빙수(1인)



쿠키엔크림 빙수(1인)
커피 빙수(1인)



디카페인 커피 빙수(1인)
디카페인 커피 빙수



커피 빙수 디카페인 출시



상시 운영 !!



Life is a collection of .

Good Place



이색 길 특집 인터뷰 3

맛집의 길



안녕하세요 준영 님 만나 뵈게 돼서 반갑습니다. 준영 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망고플레이트 홀릭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원생 손준영입니다. 학부를 생명과학과에서 공부하다가, 대학원 진학할 때 진로를 인공지능으로 틀어서 새로운 분야를 열심히 파고 있어요. 세상에 먹는 것 말고도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다행입니다. 막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서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연구실 분위기 덕분에 평일에는 공대생의 길을, 주말에는 푸드파이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TMI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10킬로 넘게 몸무게가 늘어서 다이어터의 길도 간헐적으로 걷고 있습니다(웃음).

듣기만 해도 다양한 길을 걷고 계신 것 같아요! 그중 맛집 리뷰어로 활동하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리뷰는 망고플레이트에서 진행한 첫 리뷰 이벤트 때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망고플레이트라는 회사에서 리뷰 데이터를 쌓으려고 한 건지 이벤트를 열더라고요. 그때 상품이 무려 아이패드였어요! 1등을 두 가지 부문에서 선정했는데 하나는 리뷰 수, 다른 하나는 리뷰 퀄리티가 기준이었어요. 퀄리티는 자신이 없어서 예전부터 운영하던 블로그 자료를 열심히 업로드했는데 다른 리뷰어 분께서 저보다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웃음). 그래서 1등은 안 될 거라며 결과 발표가 날 때까지 마음 놓고 있었는데 리뷰 퀄리티 부문에서 1등을 안겨주셔서 진짜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사라져버린 카이스트 명물이라 요즘 후배님들이 모르는 게 아쉬운데, 당시 최고 퀄리티 리뷰로 선정될 수 있게 맛있는 떡 외판을 판매해 주신 홍카페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4,000 곳 이상의 곳을 들리신 것도 놀라운데, 30,000장 이상의 사진을 글과 함께 기록했다는 것에 눈길이 갔어요. 리뷰를 작성하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콘텐츠를 만들고 나서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볼 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학부 때는 대전에 있으면서 대전 맛집들을 다 가보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제가 입학하던 2014년도에는 그렇다 할 맛집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제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총동원해서 계속 신상 맛집들을 찾아 나섰더니 어느 순간 대전 어디를 가도 제 리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댓글들이 “어디를 놀러도 다 준영님이 계시네요.” 이런 뉘앙스였어요(웃음). 약간 부끄럽기도 하지만 대전 맛집을 다 가봤다는 느낌이 들어서 뿌듯하더라고요. 가끔 친구들이 “우리 연구실 사람들이 너 팬이야!” 하면서 저 대신 뿌듯해하기도 해요. 요즘 대전에 갈 일이 많지 않다 보니 대학교 친구들이 저를 많이 찾는데요. 대전에 내려와서 빨리 맛있는 곳들 좀 찾아달라고 합니다(웃음).

준영님은 어떤 순간, 어떤 느낌이 들 때 맛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망고플레이트는 별점을 매기는 제도가 아니라 맛있다, 괜찮다, 별로 세 개 중에 고르는 방식이에요. 이런 패턴으로 약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왔더니 자연스럽게 식당을 방문했을 때, '아 어떤 걸 골라야겠다.' 하는 감이 생기더라고요. 저의 '맛있다' 기준은 복잡한 편이지만 (웃음) 간단하게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카테고리의 음식을 취급하는 곳들과 비교했을 때 맛이 안정적으로 좋아야 해요. 하지만 맛집 불모지라면 그 기준이 낮아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제가 업장의 서비스를 되게 신경 쓰더라고요. 맛있어도 불친절하면 재방문 의사가 사라져요. 그렇지만 가끔 정말 개성 있고 독특하게 맛있으면서 불친절하면 억울해하면서 맛있다는 놀러요(웃음). 제가 맛있다고 느끼는 기준은 먹고 나서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방문할 때 무조건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최소한의 불친절로 아주 맛있는 음식을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야 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새로운 음식을 잘 찾고 시도할 수 있는 준영 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저희 아빠도 그런 편이라 유전인 것 같은데, 초등, 중학교 때부터 새로운 음식을 계속 접하게 해주시며 낯선 음식에 대해 거부감을 없애주신 환경의 영향도 큰 것 같아요. 요즘은 보답으로 제가 아빠에게 새로운 음식과 요즘 업장들의 트렌드를 종종 알려드리고 있어요. 새로운 음식은 아무래도 해외에서 직접 접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요즘은 해외에 나가기 어렵다 보니 SNS 매체로 이런 음식들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새로운 음식들을 서치해서 올려주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많이 팔로우해서 봐요. 그리고 망고플레이트 홀릭 커뮤니티가 있는데 발 빠르신 분들께서 올려주시는 신상 맛집 소식도 정말 알차고 좋답니다! 망고플레이트에서 다양한 혜택뿐만 아니라 이런 정보 교류의 장도 크게 열려서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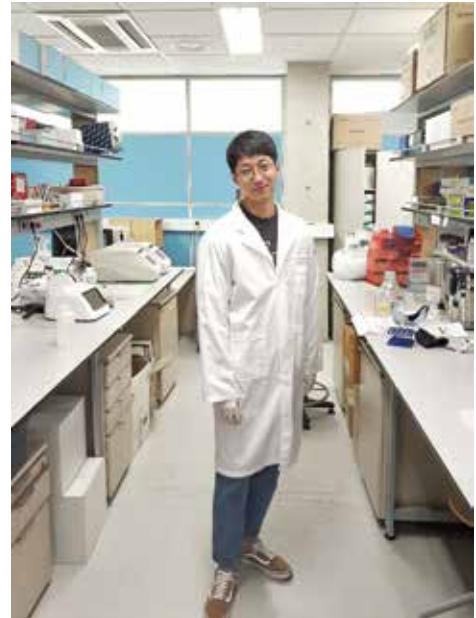


어느 순간 맛집 리뷰어의 길을 걷는다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친구들이 맨날 어디 가야 되냐고 물어볼 때 제가 정말 리뷰어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MBTI가 P지만 먹을 때만큼은 J거든요. 정말 계획적이에요. 특히 저는 휴무 요정이라 업장이 달을 경우 가야 할 플랜비까지 고려하는 타입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저에게 친구들이 맛집 코스를 짜달라고 하면 보통 밥-카페-술 코스를 동선까지 편하게 잘 짜주는 편이에요. 너무 밀도 끝도 없이 맛있는데 알려달라 하는 친구에게는 "동네, 예산, 분위기" 세 가지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요(웃음). 이 세가지만 주어진다면 저도 코스를 짜는데 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리뷰어로 활동하게 된 시점과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리뷰어를 시작할 당시에는 솔직하게 후기를 작성하는 게 내 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제 글귀 한 줄이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제 리뷰 창에서 그 업장의 단골분들 혹은 사장님과 트러블이 있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확연히 줄어 거의 없어졌죠.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올바른 리뷰어로 거듭나고 있는 거겠죠?(웃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곳을 맛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저만의 규칙을 세워두었어요.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고 있는 사실만 그대로 적시하기! 예를 들면 어떤 곳의 애프터눈티는 정말 사진 찍기 좋고 너무 예쁘고 분위기가 좋았지만 맛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런 곳은 맛에 대한 평가를 남기지 않고 어떤 점이 예뻐서 좋았다 이런 후기를 작성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의 길 위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나 추억이 있다면 그게 언제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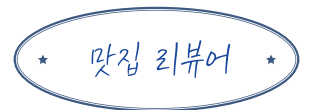
사실, 모교 대학원을 입학할 때의 간절했던 순간이 가장 떠올라요. 낮은 학점으로 간당간당하게 대학원에 입학했고, 연구실을 세 군데 골라 체험하면서 최종 선택을 하던 시기였어요. 당연히 인기가 많던 연구실 위주로 컨택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최종 선택 때마다 교수님의 원픽에 들지 못해서 갈 수 있는 연구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컨택을 드리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그 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 실험 테이블에서 계속 실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였어요. 공부를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마지막 연구실에 합류하게 되고, 그 이후로 힘을 때마다 그때의 생각을 자주 떠올리곤 했어요. 확실히 원동력이 되어주더라고요. 지금은 진로 고민 끝에 전공과 학교를 새로 시작했지만, 그때의 마음가짐만큼은 제 삶의 길에서 계속 끌어안고 가고싶어요.

내게 맞는 맛집을 찾는 비결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맛집을 방문해 보기 전에 나에게 잘 맞을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친구들을 대신 답사 보내보는 편인데요(웃음). 제 친구들도 끼리끼리라 그런지 항상 요즘 핫한 곳이 뭐가 있다고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럴 때마다 궁금했던 곳들을 알려주면서 보장되지 않았으니 다녀오고 후기를 부탁한다고 하죠. 친구들도 제 입맛을 어느 정도 아는 편이라 제가 만족할지 못할지 잘 판단해서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 외에는 저랑 입맛 취향이 비슷한 인플루언서 분들을 팔로우하는 것! 혹은 망고플레이트 홀릭 분들을 팔로우하는 것!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분들은 아무래도 피드 검색이 힘들다 보니 망고플레이트 홀릭 분들 중에 입맛 메이트를 찾아보시길 권장 드려요. 누구보다 소식도 빠르고 후기도 솔직하신 편들이라 정말 실패 확률도 낮고 믿음이 가더라고요.

준영 님에게 맛집이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맛집이란 정복하고 싶은 새로운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맛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한국은 지금까지도 새로운 맛집이 많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잖아요. 업장이 사라지는 자리에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 저로서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생겨 좋지만, 누군가는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본인의 공간을 접는 것이니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저도 후에는 최종적으로 저만의 공간을 소소하게 가져보고 싶은지라 사라진 공간에 대해, 그리고 새로 생기는 업장의 트렌드에 대해 열심히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미 제 워너비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공간을 컨설팅해 주는 역할도 꼭 해보고 싶어요. 거창하게 말고 정말 작게는 조연 정도라도요!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서로서로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10년 넘게 시간을 보내 친구가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10년을 함께하고 싶은 친구는요?

카페베네는 한결같은 품질의 원두를 공급해 주는 든든한 친구가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지요.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없었다면 우리의 10년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브라질 원두를 가장 좋은 품질로 공급해 주고 있는
Ipanema coffees,

이 친구의 화려한 이력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카페베네와 브라질 이파네마 커피가 함께한 10년의 길

이파네마 커피(Ipanema coffees)는 브라질의 커피 농장을 섬세하게 운영하는 회사예요.
 원두 품질을 인정받아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개의 수상 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답니다.
 이파네마는 1969년에 설립되었는데요.
 4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로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꿈꾸고 있어요.
 이미 25개국 이상에서 선택한 믿음직한 기업이기도 하죠. 다양한 팀과 함께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이파네마는 모든 것을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해 줘요.
 이파네마의 생두를 그들의 가치를 담아 전달해 주기에 더 믿음직합니다.

그런 이파네마를 친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카페베네가 브라질 원두를 이파네마와만 거래하기 때문일 거예요. 친구도 여러 명이 있으면 소통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친구에게 내용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요.
 카페베네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로 이어지는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브라질 원두만은 '이파네마' 단 한 친구에게 10년째 제공받고 있어요.
 그렇기에 언제나 균일한 품질의 신선한 생두를 제공받을 수 있죠.
 그 원두는 바로 고객님의 테이블까지 중간 친구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도착해요.
 더 신선하고 맛있는 원두가 오늘도 고객님의 테이블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예요.



이번엔 좋은 친구를 떠올려볼까요?

좋은 친구에게 나 역시 좋음으로,
늘 진심을 담아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카페베네와 이파네마는 이제
10년이라는 역사가 쌓아올린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친구

카페베네는 이파네마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기도 했어요.
그건 바로 카페베네만을 위한 생두 생산 농지를 따로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파네마 친구의 농장에는 카페베네와의 우정을
기념하는 팻말이 꽃혀있는데요.
그 사실을 카페베네가 알고 많이 감동하여 외쳤답니다.

우리 이 우정을 오래 유지하여
고객 여러분들께 더 신뢰감 있는 커피를 제공하도록 해요!



이러한 관계는 일관된 맛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카페베네 커피를 사랑하는 고객
여러분들께도 카페베네의 커피 맛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어요. 이파네마는 또한 최신식
설비를 마련하여 추적이 가능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파네마 친구가 보내온 정성이 그 어떤 곳에도
분실되지 않고 고객 여러분 앞에 고스란히
담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파네마는 매년 다양한 프로세스로
생산된 생두를 테스트하면서 카페베네와 함께
새로운 커피 개발을 고민하고 있어요.



카페베네와의 지속 가능한 관계를 넘어 이제는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꿈꿀 수 있는 이상적인
튼튼한 친구가 되어주었죠.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에서 더 좋은 말이 오가듯,
카페베네는 이파네마와 함께하며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직한 관계를 형성해 더
좋은 생두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생두는 10년 넘게 신뢰와 약속이라는
가치를 담아 배송되고 있어요



신뢰

카페베네는 앞으로도
이파네마의 농장과 함께
모든 순간을 함께할 준비가 됐어요.
이파네마의 농부들과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믿음이 얼마나 좋은 품질의
원두를 약속하는지,
이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항상 우리 고객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파네마 커피와 상생하며,
더 좋은 커피를 제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쉽고 재밌는 커피 이야기가 필요한 순간,

Hello again
CAFFE BENE



대만 카페베네가 여는
한국과 대만의 두 아침



서로 다른 문화가 조화를 이뤄
동네에 이국적인 재미를 선물하고 있는
대만 카페베네의 이야기를

대만에서 활약 중인 '윤성 과장님의 길' 인터뷰로 지금 펼쳐 보세요

안녕하세요 윤성 과장님.
최근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윤성입니다.
성균관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에서 취직
하여 10년 가까이 살다가 현재는 카페베네 대만
지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대만 카페베네의 한글 간판이 인상적인데요.
대만 현지 분들의 반응은 어떤 편인가요?

귀엽다는 말이 많이 들었고, 한국 여행을 갔을 때의
추억이 떠오른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사실 3년 전쯤 제가 처음 발령을 받아 대만에 왔을
때는 현지에서 저희 브랜드 인지도가 생각보다 낮다
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학당을 다녔을
시절 외국인 친구들이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질문과,
대만 현지분들이 카페베네를 보고 건네는 질문이
같았습니다.



저는 브랜드를 알릴 때 인지도가 낮은 대만 현지에서
항상 초심을 갖고, 자세를 낮춰서 주변 현지인들에게
저희를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예전 대만 지사 매장들은 한글 간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글 간판이 현지인에게 낯설고,
무슨 뜻인지도 모를 수 있더라도 '저희 브랜드는
한국에서 왔습니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
고자 한글을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장 밖 배너에도 저희 판매제품의
전체 사진과 중국어, 한국어 이름을 함께 표기하여,
카페베네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라는 콘셉트로
대만 매장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콘셉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아침은 대만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요.

대만 사람들은 아침을 거의 밖에서 사 먹고, 한국처럼
밥이 아닌 국수, 전, 만두, 베이커리, 샌드위치 등을
많이 먹습니다. '자오찬띠엔'이라는 아침만 운영하는
식당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 대만식 아침을 질려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아침에 뭘 먹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한국 서울의 아침'이라는
콘셉트를 잡아 현지인에게 접근했습니다.
메뉴는 한국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베이커리
제품 위주로 개발하였고,
제품 이름도 한국 이미지를 연상 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햄에그잉글리시머핀'은
'김비서의 아침'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침뿐 아니라 이태원 브런치,
가로수길의 커피타임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해외 진출 브랜드인 만큼, 저희가 카페베네를 대표
할 뿐만 아니라, 한국 카페의 이미지도 대표한다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수이]

**대만에서 가장 좋아하는 길이나 장소가 있으신가요?
다녔던 길 중 인상 깊었던 길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만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두 곳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주로 단수이에 가고, 뭔가 큰 기획을 할 때 상산에 갑니다. 단수이는 어항 겸 해변 휴양지이고, 지하철로도 갈 수 있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유명한 단수이의 석양, 바닷가에 앉아서 석양을 즐기는 사람들의 실루엣! 정말 아름다워요.

상산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 정상에 도착하면 타이베이 101빌딩과 주변의 경치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상산]

메뉴 개발을 직접 하신다고 들었는데, 민생동점 오픈 당시 크로플 바 대기 줄이 생겼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메뉴 개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시는지, 어떻게 다양한 일을 다 소화해 내고 계신지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대만 주력 점포 형태가 소형매장이다 보니 Take-out에 적합한 메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작년에 한국 본사에서 크로플 바를 출시하고 김재환 이사님께서 팬창은 아이템이라고 추천해 주셔서 바로 현지화 시켜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제품이고, 맛있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또 대만에도 한국처럼 크루아상 전문점, 도넛 전문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점을 보면 단일한 아이템으로 여러 가지 맛을 내어 진열 해두는데, 보기에도 좋고, 장사도 잘 됩니다. 대만 카페베네의 크로플도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다양한 맛의 크로플 바를 연구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일을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없어요. 대만지사가 현지에서는 아직 작은 회사 이다 보니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맞으면 계속하고, 틀리면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여 새로운 방법을 모색 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박혜경 대표님, 김영선 사장님, 김재환 이사님, 한기수 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믿고 맡겨 주신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만 카페베네에서만 볼 수 있는 메뉴를 추천해 주세요!

'구운 흑당 카페라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만에서 흑당 음료가 유명하고 맛있잖아요.
 이 음료는 현지인들이 많이 즐겨 찾는 메뉴입니다.
 흑당 시럽이 아니라 현지의 흑당 파우더를 활용하여
 에스프레소와 우유를 혼합하여 만들었습니다.
 매력 포인트는 음료 위에 흑당 파우더를 뿌리고
 토치로 직화한다는 것인데,
 구운 흑당을 톡톡 깨어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대만 카페베네를 운영하며 만난 특별한 인연이나 소중한 기억, 추억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 대만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의 정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란점 가오픈을 했을 당시 동네에 사시는 단골손님 한 분이 자발적으로 점포 전단지들을 학교 앞, 집 주변에 뿌려주셨거든요. 거기에 아는 친구들한테도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직접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끝나면 또 매장에 와서 커피를 한 잔 테이크아웃 해서 가시기도 하고요. 점주님께 물어보니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이란은 대만 동북쪽에 작은 현인데, 이웃들 간에 정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대만에서 꿈꾸는 일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대만 어디를 가도 현지인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카페베네 브랜드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브랜드를 알려줬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 제일 속상하거든요. 또한 해외에서 한국 대표 카페로서 한국 카페 문화를 대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카페베네 대만점은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카페베네는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각 나라와 그 시장의 색깔에 따라 모습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페베네 대만점은 대만 현지 시장에 맞춰 소형 Take-out 매장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료와 어울리는 디저트를 같이 제공하며 K-cafe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실존주의자들은 모든 인간들이 인생이라는 기나긴 길의 출발점 앞에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색, 국적, 부모의 재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사회를 포함하여 우리가 태어날 때 스스로 선택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현존재'는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미 만들어진 세계에 '내던져졌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던져져 있는 것을 '피투'라고 말하고, 그러한 세계에서 '선택적으로 의미를 밝혀내는 것'을 '기투'라고 말합니다. '기투'는 내던져진 현재를 넘어 미래를 향해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를 '던지는' 인간 실존의 존재 방식을 의미하는 말로써, 하이데거 존재론의 중요한 개념이자 또한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의 기본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될지 어떤 삶을 살지 미리 정해진바 없이 세상에 던져지지만,

그것이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미래를 기획하고 선택하는 삶,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한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실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께 혼나가면서 달달 외웠던 국민교육헌장의 첫 문장에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청년이 되어 만난 사르트르는 그런 엄청난 짐 따위는 애당초 나의 등에 지워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나에게 지워진 역사적 소명이 없거나 혹은 특정 신의 은총과 의도에 의해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실존주의 철학의 생각들은 역설적으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 즈음, 새로운 질문들 역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하고 같았듯이 세상에 던져진 이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태어난 이후의 실존적 인간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욕망과 의지에 기반한 선택을 하여 스스로 기획한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인간에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뿐일 것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오로지 죽음 한 가지 만으로 설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스스로가 선택한 길을 완벽하게 걸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인 조르바가 아닙니다. 조르바는 매 순간 가장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의를 위하여, 때로는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혹은 실현 가능성과 실패의 두려움으로 진정 바라는 길을 걸지 못할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기대, 부양할 자식들, 세상의 평판, 타인의 시선 등은 순수한 소망에 근거한 자유로운 선택을 늘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을 걸을 수만은 없음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선택을 고사하고 다시는 걸기 싫은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의 국민들, 아니 러시아의 국민들마저도, 전쟁을 원하거나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며, 대한의 백성들이 지난 세기 초반에 식민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거나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기로 선택한 적도 없었으며, 인류가 팬데믹을 선택해서 지난 2년간 삶의 즐거움을 대부분 포기하고 고통을 받아야 했던 것도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온전한 실존의 삶을 살지 못하며,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당하며, 낯선 길을 걸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요 받은 그 길을 걸으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는 실존의 삶을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그 길을 걷는 걸음걸이만큼은 온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길을 걸을지라도 그 길을 걷는 마음가짐과 자세는 감히 그 누구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카페베네의 임직원들과 가맹점주님들 그리고 고객 여러분들은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을 강요 받았습니다. 그러나 걸기 싫은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늘 당당하고 빠르게 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무더운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세상을 배려했으며, 이웃들에게 아픔을 전가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를 격리하는 고통도 감수했습니다. 카페베네는 이 모든 배려와 노력들을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해내신 모든 분들에게 훌륭히 '실존'하셨다고 진심을 담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배려하고 배려 받았기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소중해진 우리의 평범한 삶을 향하여 카페베네는 이제 돌아갑니다. 카페베네의 마음과 같이 언제나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CAFFE BENE

홈페이지 www.caffebene.co.kr
 인스타그램 @caffebene_official
 페이스북 /caffebene_official

발행인 김영선
 편집장 오광록

Communication
roka@caffebene.co.kr
 02-3438-1427

주소 서울 성동구 상원1길 25, 8층

제작 카페베네
 발행 2022년 5월 31일
 인쇄 한국학술정보(주)

에디터	오광록	roka@caffebene.co.kr
디자이너	김규리	gyul@caffebene.co.kr
	장유진	yujin@caffebene.co.kr
	이혜명	hyem@caffebene.co.kr
글	오광록 김영선	roka@caffebene.co.kr
기고	김규리	gyul@caffebene.co.kr
	정창국	ccchung@caffebene.co.kr
	이동관	ldk3434@caffebene.co.kr
사진	김규리 김영선	gyul@caffebene.co.kr
그림	곧세나	na@goodseena.com
폰트	사용 서체	나눔 손글씨체
		G마켓 산스
		제주 명조체
		두년체
		상상토끼
		개미똥구멍체
		KCC 은영체
		Mapo 금빛나루